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리 기 혁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당의 호소따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련일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오늘의 이 장엄한 전민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그들에게 충분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사상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은 무엇보다먼저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울데 대한 사상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문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과학연구활동을 통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개척자, 기수들이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뿐만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자강의 대진군에서 기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하는 사업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으며 그들 한사람한사람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을 다그치는데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국가들사이에 국력경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그속에서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는 자연히 뒤전으로 밀려나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과학기술력은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사회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는 과학기술강국이다.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보나 시대의 요구와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의 중요성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면서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과학기술로써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실상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 애국자이고 영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애국자, 이런 영웅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는것은 응당한것이고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들모두를 금방석에 앉히자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자, 기술자들모두를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적지식인으로 키워주시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지난날 곡절많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오랜 지식인들도 우리 제도에서 자라난 새 세대 지식인들도 다같이 보람찬 과학탐구의 한길을 걸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드시고 아직은 부족한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오계신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과학자, 기술자들도 많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령도자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들리우면서 과학연구활동을 마음껏 해나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없다.

믿음은 보답을 낳고 충정을 발휘하게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끝없이 내세워주면 그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열정을 발휘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처럼 수령이 알고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우리 당의 참된 인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나래를 활짝 펴고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너도나도 뛰어들수 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는 기풍이 확고히 세워지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시대적사명감을 더 깊이 자각하고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게 된다.

만리마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도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다른 도들에 비하여 경제토대가 미약하고 조건이 불리한 강원도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될수 있는 근본비결의 하나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는 기풍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데 있다.

강원도의 경험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고 실적에 따라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도 잘해주어야 한다.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나라의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국가에 큰 경제적리득을 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대로 더 큰 사회적혜택과 물질적보수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은 다음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사상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적각오와 과학기술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사업과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없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줄수 없다.

경제강국건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탐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게 된다. 과학탐구의 길은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든 사색과 정열을 오직 연구사업에만 쏟아붓는 고도의 집중성을 요구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든 사색과 정열을 연구사업에 쏟아붓자면 그들에게 충분한 생활조건과 연구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상애로에 신경을 쓰면서 사고가 분산되면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받기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총명한 두뇌와 높은 실력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라고 하여도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을수 없게 된다.

연구조건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실과 실험실, 실험설비들과 시약, 자재를 비롯한 연구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지지 못하면 과학연구사업에서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그들의 생활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년간에만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연구기관들과 중요과학연구기관들에 수만금에 달하는 귀중한 실험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마련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주시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발적인 발기와 구상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기풍,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시간과 자금, 연구조건을 마련해주는 기풍, 연구과정에 부족점과 우여곡절, 실패가 있다고 하여 중도반단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신심과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을 생활화, 제도화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각종 사회적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게 하여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과학으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자, 우대